

사역은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약 20 년간을 교도소사역을 해온것에 대해 참 신기해하기도 대견해하기도 한다. 여자의 몸으로, 결혼한 새댁으로 그것도 올망졸망 4 살 8 살 9 살 짜리 세딸을 데리고 교도소를 다녔기때문이다. 거기에는 딱 한가지 이유에서다,,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바로 내가 거저 받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할수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기회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절망과 고통속에 있을때 어느누구도 내게 줄수없었던 그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에게 내가 할수있는 최고와 최상의 표현으로 그 사랑을 반응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기에 내가 세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이고 젊은 새댁 이었다 는것은 이유와 핑계가 될수가 없었다. 그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수밖에 없는 상상할수 없는 기쁨이었고 자원하고 싶은 의무가 되었다. 그리고 20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행복은 여전하다. 그것은 당연할수밖에 없는것이다. 그 구원의 사실이 변한것도 감소한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난 20 년간 어떻게 꾸준히 이일을 할수있느냐고 물어온다. 처음사랑, 즉 처음 은혜 받을때 와는 달라질수 있지 않느냐는것을 가정시하고 하는 질문들에 나는 마음이 아프다.이유는 그들의 질문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을때의 처음 감격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느끼는 당혹감과 죄의식과 혼란을 겪고 있는것이 내게 보여지기기 때문이다. 아마 교회안에서도 이러한 성도님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을수 있을것이다. 한동안은 은혜로 뜨거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식어지거나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하는모습 들을 말이다. 나는 이런분들을 위해 20 년간을 한결같이 같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행복한 사역을 하게된 이유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중요한 몇가지안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결론은 “사역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 첫째 이유는 사역의 최전방이라고 할수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과 조건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재소자들의 현실적 아픔을 피부로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도 내가 그들을 도울수있는것의 한계를 느끼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것은 오직 복음 한가지인밖에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기때문이다. 그들의 절박하고 참혹한 처지속에서 나는, 은혜를 체험할 당시 나를 싸고두르고 있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절박한 나의상황을 기억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삶이 지옥같았을때 내삶에 오신 주님이 주셨던 그 평화를 나는 잊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과 같이 그들의 지옥같은 지금의 삶에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천국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다른누구보다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20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가 만난 재소자가 그곳에서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함께 내게 임한 주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기에 내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늘 새롭게 내게서 마르지않는 생명의 샘물처럼 솟아오를수밖에 없음을 느낀다. 그러기에 사역은 희생도 고통도 아닌 구원의 감격을 늘 새롭게 누릴수있게 만드는 축복의 현장인것이다. 사역의 대상이나 현장은 비단 재소자나 교도소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흔히 볼수있는 내이웃들의 삶에서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슬픔과 절망,그리고 미움, 증오로 사는 구원의 감격과 경험없이 사는 모든사람들이 사역의 대상이고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 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남보다 더 잘난 무엇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도 아니다. 그리고 그사역의 축복은 그저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아름다운 감격으로 인한 평화과 기쁨을 똑같이 다른사람에게도 경험하게 하고픈 단순하고 평범한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 돌아오는 엄청난 축복인것이다. 두번째로, 이렇게 단순하고 순전한 사랑의 실천이기에 사람의 이목을 바라거나 기쁨을 구하는 것이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램으로 하기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느끼게되며 그것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조금만치라로 주님을 닮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있게 되는것이다.우리가 주님닮기를 원한다고 흔히들 말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한다.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최고와 최선의 좋은 방법과 길은 바로 잃어버린 양한마리를 찾아 헤매며 결국 구해 돌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것이다. 그 잃어버린 양한마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가운데 안타깝고 애가 타는 마음을 경험해 본다면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는것이다. 그 마음을 느끼는 자가 어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을수있겠는가. 모습과 겉모양을 닮는것은 진정한 닮음이라고 말할수 없지만 같은 마음을 느끼며 그 심장의 애가 탐을 느낀다면 그것이 어찌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수있으며 그안에 어떻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존재하지 않을수 있는가 . 그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래서 축복인것이다.그리고 분명한것은 사역을 하락하신 하나님의 뜻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사역을 하는 내자신의 영적성장에 있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의 초점이 사역에 대상뿐아니라 사역하는 내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늘 돌아보게 하는것 또한 사역의 비밀중의 한가지이다. 그것으로 인해 자칫 흐드러지려 하던 마음도, 자칫 교만하려는 마음도 차칫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에 대해 소홀해지려 할때도 어김없이 나를 처음의 그자리에 도로 온전히 세우게 만드는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 ,사역을 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 해결할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이겨 나갈수가 있었다. 내가 만난 재소자들의 지옥같은 현실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있었던 절박하고 처참했다고 여겼던 내아픔이,내고통이 사치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바로 내가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지자 그때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내십자가의 무게는 전혀 느낄수가 없어지게 된것이었다. 내가 남의 짐을 대신 지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의 짐을 지고 계셨다라는것을 수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나는 사역이 축복이라는 이유를 여기서도 또 발견하게 된것이다. 이렇게 사역은 최고이자 최대의 축복인것이다. 그리고 20 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출감자들과 교도소안에서 그곳의 같은 처지의 재소자들을 눈물의 기도로 돌보며 사도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는 행복한 즐거움 또한 사역이 축복임을 현실로 증거해주고 있는것이다.그러기에 앞으로도 생명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답하며 재소자들에게 복음증거자로 살아가기를 다시한번 겸손히 주님께 고백해본다.그리고 구원을 받은 모든이들에게, 거저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사랑의

실천으로 인한 축복의 현장된 삶을 살아가길 감히 권해본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한다.